

# 지자체 발주 입찰 '최저가 낙찰제' 폐지

### '덤핑' 출혈경쟁 없애 소상공인 조달시장 적정가격 보장

#### 정부, 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돼 업체가 덤핑으로 인한 출혈경쟁 없이 적정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지자체가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때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업체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가격을 제시한 곳을 낙찰하고, 그 결과 급식이 부실화되는 문제도 생겼다.

앞으로는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2억1000만원 이상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돼 업체가 적당한 대

가를 보장받는다.

또 일부 물품이나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데 요구되던 실적 제한의 문턱도 낮아진다.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특수한 설비나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은 지자체가 입찰할 때 업체에 일정 실적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계약도 규모가 2억1000만원 미만이면 실적제한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용역계약 이행이 완료된 이

후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 검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규정상 계약의 대가는 검사가 완료된 후 지급하도록 돼 있는 만큼 '검사 완료 간주제'가 도입되면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소상공인에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고,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며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지방공무원 뽑을 때 국가직보다 엄격한 신체조건 요구하면 차별"

#### 국가인권위

지방직 공무원을 뽑을 때 국가직보다 엄격한 신체조건을 요구하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방호직렬 지방직 공무원 임용 시험 시력 기준이 국가직보다 까다롭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두 기준의 차이를 두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방호직렬 국가직 공무원의 두 눈 교정시력 기준은 0.2 이상인 반면 같은 직렬의 지방직 공무원 두 눈 교정시력은 이보다 크게 높은 0.8 이상이다.

인권위는 2010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이 개정돼 시력 기준이 0.3에서 0.2로 낮아졌고, CCTV 등 다양한 장비의 활용으로 육안에 의존한 방호업무 비중은 작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연합뉴스



광주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12일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복나눔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에서 신랑신부들이 객석들의 축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후원회 회장

단 협회의 주관으로 18쌍의 다문화가정이 이날 결혼식을 올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남 으뜸경관서 봄나들이 즐기세요"

### 전남도, 여수 밤바다·오동도, 담양 죽녹원 등 10선 추천

전남도가 본격적인 봄나들이철을 맞아 우수 경관자원 가운데 전남의 정체성을 살린 으뜸 경관 10선을 선정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전남 으뜸경관은 전남도가 2016년 공모를 통해 각 시군에서 신청한 대표 경관 55개소를 대상으로 온라인 선호도 조사, 국내외 언론인 및 경관 전문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자연·역사·문화와 전남인의 삶이 투영된 대표적 경관자원으로 선정한 곳이다.

'전남 으뜸 경관 10선'은 여수 밤바다와 오동도, 순천만 국가정원과 생태공원 및 낙안읍성 민속마을, 담양 메타세쿼이아길과 죽녹원, 곡성 섬진강 가차마을과 전통시장, 고흥 소록도와 거금대교, 보성 녹차

밭,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와 정남진 토요시장, 해남 두문산 대홍사, 영광 백수해안도로, 완도 청산도 등이다.

여수 밤바다와 오동도는 하멜등대에서 돌산공원을 잇는 원도심권 전수연안을 중심으로 야간경관사업을 통해 조성된 곳으로 돌산대교, 거북산대교, 장군도를 조망권내에 두고 있어 산책을 하면서도 한눈에 밤바다의 낭만적인 정취와 야경을 볼 수 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자연생태공원 및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지난 2015년 10월 대한민국 국가정원 제1호로 지정됐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은 세계가 인정한 5대 연안습지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습지와 갈대가 아름다운 지역이다.

담양 메타세쿼이아길과 죽녹원은 담양읍에서 순창으로 약 10km 거리에 2000여주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이 조성된 곳으로 이국적이면서 환상적인 풍경을 계절별로 연출하고 있다.

곡성 섬진강 가차마을과 전통시장은 2만㎡의 면적에 1004종의 장미공원이 조성돼 수 만송이의 장미가 화사한 미소로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는 곳이며, 고흥 소록도는 섬 전체가 울창한 산림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으며, 한센인의 아픔을 봉사로 치유하고 희망을 이야기한 벽화, 소록도의 이미지를 담은 작은 미술관 등이 있는 곳이다.

보성 녹차밭은 바다 물결을 형상화 하듯

굽이를 이루는 계단식 녹차밭이 형성되어 있으며 골과 골 사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수확을 할 수 있게 만든 독특한 자연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와 정남진 토요시장은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내뿜는 편백나무 숲속의 환경성 질완 치유와 힐링을 위해 조성된 곳이며, 해남 두문산 대홍사는 사찰을 비롯하여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어 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영광 백수해안도로는 백수읍 길용리에 서 백암리 석구미 마을까지 16.8km의 해안도로다. 2006년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2011년 제1회 대한민국 자연경관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완도 청산도는 국제 슬로시티연맹에서 2011년 세계 최초로 공식 지정된 슬로길 1호가 있으며, 청산도에서만 볼 수 있는 구들장 눈은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이다. /윤현석기자chadol@

## 귀촌 청년 50명에 활동·정착자금 지원

### 지역균형발전 '청년희망 뿌리단' 모집

#### 인구 급감 '지방소멸' 방지

#### 행자부, 다음달 12일까지

인구 급감으로 지역사회가 붕괴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갖고 정착하도록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청년희망뿌리단'에 참가할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50여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희망뿌리단은 행자부가 올해 마련한 '인구감소지역 신 지역균형발전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와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에 따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위기에 직면한 일본에서 각 지역으로 청년을 보내 정착하도록 지원한 시스템을 본뜬 것이다.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정착의 기회를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9개 시도와 28개 시군은 청년희망뿌리단을 위해 창업·취업과 공공 프로젝트, 지역 자원봉사 활동 등 44개의

과제를 제안했다. 청년희망뿌리단 참가자들은 이 과제 외에 자신의 아이디어로 자유로운 과제를 제안할 수도 있다.

참가자들은 창업에 성공한 선배나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지역 주민 등에서 활동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빈집·빈점포 등 공간과 홍보비, 교통 실비, 활동비 등이 지원된다.

예를 들어 곡성군은 지역 양극창고와 빈점포를 활용한 복합예술가페를 창업할 때 인테리어 등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 안동시에서는 청년들의 학습공동체인 동내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도심 내의 유휴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이들은 한국지역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행자부는 2019년까지 300명의 청년희망뿌리단원을 배출하고, 이 가운데 60% 이상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자금과 출항 인사, 기업사회공헌활동자금 등이 결합한 '로컬벤처 모델'을 구축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해 참가를 독려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전남도 관공서 최초 '시니어 택배사업'

#### 어르신 양질의 일자리 제공

#### 노인인력개발원 등과 협약

전남도가 관공서로는 최초로 '시니어 택배사업'을 시작한다.

전남도는 12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CJ대한통운, 대한노인회 전남도연합회와 함께 고령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니어 택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최성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강갑구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장, 이낙연 전남지사, 시니어 택배 참여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니어 택배 사업은 기존 정부재정지원으로 이뤄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모

델이다. 전남도는 민·관이 협력해 시니어 택배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집하시설인 이동식 트레일러 제작·설치비용을 지원하고, CJ대한통운은 택배 물품 배송 장비인 전동스마트카트와 수레 등을 지원하며, 택배 참여 어르신에게 택배 물품 수집·배송 수수료를 지급한다.

대한노인회 전남도연합회는 시니어 택배 사업 참여 어르신 선발·교육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운영 전반을 맡는다.

전남도는 청사 내에 택배 거점 집하공간을 확보하고, 전기·통신·PC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